

한성대 성곽마을의 봄



저희는

한성대 성곽마을의 시간에 따른 봄의 변화를

아이의 눈을 통해 동화같이 표현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집들로 빈틈 없이 채워진 마을, 그러나 가까이에서 보면 색깔과 생명력이 넘치는 마을인 한성대 성곽마을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나태주 시인의 시 풀꽃이 어울리는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봄을 만났습니다.

3월에 처음 마을 사진을 찍으러 나갔을 때, 마을은 고요하다 못해 삭막했고 텅 빈 화분들이 그 분위기를 더하였습니다. 화분은 많았지만, 화분에는 흙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처음에는 화분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날씨가 점점 풀리니 화분에서 식물들이 조금씩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그마한 새싹으로, 점점 자라더니 봉우리를 내밀고 꽃을 틔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은 색색깔의 꽃으로 감싸졌습니다. 푸른 색의 잎들을 잔뜩 두른 나무들은 한층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돌 틈 사이에서, 계단 밑에서, 하수구 구멍에서도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식물들이 하나둘씩 얼굴을 내밀고 꽃을 피웠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화분을 가꾸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집 앞의 공간이 좁으면 화분을, 그보다 여유가 있으면 화단을, 공간이 넓으면 마당에 나무를 꼭 하나씩은 기릅니다. 덕분에 한성대 성곽마을만의 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전시를 통해 봄이 오면서 변화하는 마을의 모습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